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5월 10일 (둘째 주일/어버이주일)

성경본문 : 창세기 8장 20-22절

설교제목 :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삶과 부모공경의 계명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 최초의 팬데믹이었던 노아 홍수 이후의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아야할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살아야할 고민으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동굴이나, 샘물 혹은 양식될 것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20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노아가 드렸던 제사는 번제입니다.(20절)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출20:24) 노아의 제사는 전적인 헌신과 감사였습니다. 노아가 드렸던 번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는 유일한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의 땀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모든 자신의 생업을 중단하고, 안식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업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생명과 복을 주관하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변함없는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즉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합니다.(21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연한 사람들의 죄악과 포악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정결하게 하셨지만, 홍수로 사람의 죄된 본성은 씻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에나 사람의 악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21절) 사람의 죄된 본성은 노아홍수 이전과 변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커스 찬양팀의 ‘주를 위한 이곳에’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시대가 절망스런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다면, 세상은 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위로자가 될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의 경건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희망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공 예배에 소홀히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의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세상의 희망을 시작하십니다. 22절을 봅시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이란 표현은 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이 존재

하는 동안에는 자연의 질서적 순환과 항시성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없다면, 인간과 모든 생물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위에 다음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의 역사는 노아 한 가정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특히 가정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따라서, 자손을 낳아 육적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어주는 영적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적인, 영적인 복을 위해서 부모라는 매개를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5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강도는 무척 강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출21:15, 출21:17, 신21:18-21) 왜냐하면 5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여호와와 복과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직적 지상명령, 제자를 제자화하는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수직적 지상명령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계명이 5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이 없이는 온전한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을 단순히 효의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부모 공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과 말씀이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삶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핵심적인 개념은 바람직한 계승이 참된 성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참된 계승을 통한 성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형통의 삶을 가져오게 됩니다.(왕상2:3) 이러한 진정한 성공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노아홍수 이후에 노아가 드린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2) 노아가 드린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코로나 이후에 가정제단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며, 가정 제단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